

“빨치산 이끈 사령관 김선우” 행적 톺아보다

“1954년 2월 김선우는 백운산의 폐광 굴에 숨어 있었다. 광양에서 지하사업을 하던 유상기가 군경들의 추적을 피해서 폐광 굴에서 김선우 위원장을 모시고 있었다. 그런데 그 굴의 소재가 군경에서 유출되었나 보다. 물려오는 군경에 맞서 유상기는 맹사격을 가하면서 뛰쳐나왔다. 김선우의 탈출로를 확보하고 자신은 그 자리에서 적탄을 맞고 쓰러졌다. 이때 호위병 조병탁도 함께 전사했다. 위기를 모면한 김선우는 기요과 및 전선부 대원들과 함께 서굴에 머물러 있었다. ...중략...이튿날 88골짜기 양지 사면에 마련된 지하 비트에서 하루를 잠복했다. 그 뒷날 새벽에 호위병 박문상, 기요원 전덕례는 함께 백운산 주능을 이동하던 중이었다. 그때 잠복하던 침공군의 자적을 받고 김선우는 그 자리에서 절명했다. 1954년 4월 5일의 일이다.”

이는 전남인민유격대 총사령관 김선우의 마지막 순간을 소개한 부분(본문 253~254쪽 일부)이다. 빨치산을 별도로 공부하지 않았거나 진보적 역사나 투쟁의 역사를 선호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김선우라고 하는 이름이 낯설 수 있다. 그러나 김선우는 남부군 총사령관 이현상이 널리 알려져 반면 대중들에게 강력하게 인식되는 이름은 아니었다. 이현상이 빨치산의 상징이었다면, 빨치산의 중심은 김선우 총사령관이었다.

모든 조명의 최일선이 이현상에 맞춰지다 보니 김선우가 그만큼 언급되는 경우가 많지 않을 수 밖에 없었다. 거의 묻혀 있다시피 한 김선우의 삶과 투쟁 족적을 하나 하나 더듬어가는 작업이야말로 고투의 일이 아닐 수 없을텐데 각종 자료 및 문헌들을 뒤졌을 뿐만 아니라 빨치산 출신 인사들이나 그 후손 및 관계자들을 만나며 축적된 김선우에 대한 사실과 비하인드 스토리 등가지를 허투루 다루지 않

고 망라한 인물조명 단행본이 출간됐다.

저자는 늘 진보의 울타리 안에서 한 평생을 살아온 광주 출생 철학자이자 작가, 민중운동가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진 황광우씨(68). 그가 최근 인물조명서 ‘빨치산 리포트’(다큐북스 刊)를 펴냈다. 황광우가 아닌 정인이라는 필명으로 말이다. 정인은 그의 필명이다. ‘빨치산 리포트’는 저자가 말하고 있듯 “전남인민유격대 총사령관 김선우에게 바치는 헌사”다. 올해 타계 72주년을 맞은 김선우는 역사의 구름 속에 자취를 감춘 전설의 빨치산이라는

게 복원하는 작업이 되고 있기도 하다.

저자가 김선우에 주목하게 된 계기는 구례 출신 소설가 정지아의 ‘빨치산의 딸’ 속의 주인공 고상옥이 정운창으로, 정운창이 궁금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빨치산의 딸’을 읽게 된 가운데 정운창이라고 하는 인물이 전남인민유격대에 소속해 김선우와 함께 활동한 빨치산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후에 저자는 전남인민유격대 총사령관 김선우의 발자취를 추적하게 된 것이다.

특히 빨치산의 명령서와 회의록, 빨치산이 작성

우의 서사를 한데 정리한 것이다.

이 인물조명서는 해방전후사의 재인식을 비롯해 고난의 빨치산, 이제야 말하는 한국전쟁의 실상, 해방구 백야산에서, 빨치산의 편지, 김선우의 최후 등 8부로 구성됐다.

저자는 서문에서 “나에게 빨치산은 불덩어리다. 빨치산만 생각하면 가슴에 분노의 불덩어리가 치밀어 오른다. 스무 살 어린 청소년들이 생사를 썩으며 토벌대에 쫓겨 다녔다. 여성들이 생솔가지를 꺾어

황광우씨 집필 인물조명서 ‘빨치산 리포트’ 선보여 전남인민유격대 총사령관...다년간 조명 작업 결실 자료·문헌·현장·관계자 망라, 삶 족적과 서사 복원



저자 황광우

것이 저자의 인식이다. 이를테면 김선우의 서사를 쫓는 행적이 펼쳐져 있다.

김선우의 족적과 투쟁기를 추적하다보니 그와 관련된 빨치산 출신의 인사들이 호명되고 있다. 한 마디로 말하자면 이 인물조명서는 잊혀진 빨치산의 역사를 일깨우고 있는 셈이다. 역사의 심해로 가라앉아 있던 관련 인물들이 김선우를 중심으로 부채살처럼 펼쳐지고 있다. 널리 알려져 있던 빨치산 소년 돌격 부대 문화부 중대장 출신의 박현채(1934~1995·전 조선대 경제학과 교수)나 남부군 빨치산으로 활동했던 서양화가 오지호(1905~1982·전 조선대 교수) 등까지 호출되고 있다. 김선우에 대한 조명은 실타래처럼 얽혀있던 빨치산들의 발자취를 생생하

한 자서전. 빨치산이 발행한 신문과 경찰 측이 작성한 토벌보고서를 포함해 빨치산에 관한 방대한 자료가 수록돼 있는 등 토벌대 경찰이 미군에게 올린 빨치산 보고서, 미국 워싱턴의 국립문서보관소(National Archives)에 보관돼 있다가 기밀이 해제돼 공개된 문헌이자 영문으로 작성된 한국경찰대의 일일보고서(전 3권) 등을 접한 것은 저자에게 큰 수확의 하나였다. 이런 자료들을 뒤적이다가 저자는 김선우가 쓴 편지를 발견하고는 “떨렸다”는 말로 당시의 소감을 전했다. ‘남부군’의 이태도 모르고, ‘태백산맥’의 조정래도 모르며, ‘아버지의 해방일지’의 정지아도 모르는 빨치산의 비밀이었기에 그것을 하루라도 빨리 공개하고 싶은 마음이 김선

우 위에 깔고 잠을 잤다. 아. 열흘을 굶으면서 산골짜기를 헤맸다. 굶어 죽고, 얼어 죽고, 총에 맞아 죽었다. 인류의 역사에서 이렇게 처참하게 죽어간 경우가 한국의 빨치산 말고 또 있었을까? 빨치산은 한 개인의 실존적 선택도 아니고, 특정 집단의 전략적 선택도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어 저자는 김선우에 대해 “1954년 4월 5일 백운산 상봉에서 최후를 맞을 때까지 빨치산을 이끈 이는 사령관 김선우였다. 백운산 정상이 늘 구름 속에 숨듯이 총사령관 김선우는 역사의 구름 속으로 자취를 감추었다”고 덧붙였다.

‘빨치산 리포트’ 속 일부 사진은 김옥렬(다큐북



▲김선우
▶김선우 수용자 신분장

스 대표) 씨가 맡았다. 저자가 빨치산의 현장을 직접 답사한 것처럼 사진작가인 김 대표 역시 백야산과 백운산 구석구석을 뒤지며 카메라로 현장의 모습을 담았기에 추후 김선우의 삶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전망이다. 여기서 SI 도움을 받아 여러 장의 흑백사진을 컬러 사진으로 변환, 더 풍성하게 사실감을 극대화해 독자들의 김선우에 대한 이해를 꾀하고 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위로와 희망” 투영...오십 넘어 늦깎이로 첫 개인전

서미 작가, 24일부터 광주대교구청 내 갤러리 현서
“신앙 생활 하며 방향성을 찾아 제2의 선교라고 생각”



‘평화의 기원’



광주를 연고로 활동 중인 서미 작가가 늦깎이로 첫 개인전을 연다. 전시는 오는 24일부터 9월 5일까지 광주대교구청 내 갤러리 현. 총 작품작은 100호부터 3호까지 50여점.

‘은총의 빛’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개인전은 56세를 맞아 여는 전시여서 다른 작가들에 비하면 한참 늦었다. 그래서 작가는 이번 첫 개인전을 단순히 그림을 보여드리는 자리가 아니라, 화가로서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도이자 선교의 표현이라는 설명이다.

광주가톨릭미술가회 소속 회원으로 활동하는 작가는 1999년 12월 세례를 받은 이후 성가대, 레지오 마리에, 율프레아, 독서, 금요 신창 봉사 등을 해왔고, 최근에는 위령회 활동에도 함께하며 신앙 안에서 많은 은총을 체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얼마 전에는 위령회 주최로 지리산 피아골 피정의집에서 1박 2일 피정을 다녀왔을 정도로 신앙심이 깊다.

첫 개인전임에도 불구하고 오프닝 행사를 갖지 않기로 했다는 설명도 잊지 않았다.

작가 스스로를 드러내기보다 작품을 통해 오직 주님의 영광과 사랑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다.

작가는 이번 전시에 대한 소감을 통해 “그룹전은 많이 했는데 제 개인전에 대한 특별한 생각은 없었다. 그러나 전시와 관련해 일반적인 것은 하고 싶지 않았다. 신앙 생활을 하며 방향성을 찾아 제2의 선교라고 생각하고 늦게나마 전시를 열게 됐다”면서 “부족한 실력이지만, 전시를 찾는 모든 분들이 작품을 통해 주님의 ‘은총의 빛’을 느끼고, 위로와 평화, 희망을 얻어 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미 작가는 목포대 서양화과를 졸업, 광주 총장 축제전과 한우회 대구 미술대전, 국제미술가협회 미국 초대전 등 단체전 100여회에 출품했으며, 대한민국 미술대전 우수상과 광주미술대전 및 무등미술대전 입선 등 다수 수상했다.

서울 성미술단체전(7.1~9.5 스페이스 성북 갤러리)에 출품한 가운데 한국가톨릭미술협회 단체전(8.15~20 제주 서귀포문화예술회관 전시실), 광주 미술가협회 정기전(9.28~10.13 갤러리 현) 등을 앞두고 있다. 현재 한국미술협회 및 광주미술협회, 한국가톨릭미술협회와 광주가톨릭미술가회 등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전통문화예술강좌 수강생 모집 전통문화관, 12일까지 15~16명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은 청소년을 비롯해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2026 하반기 전통문화예술강좌’ 수강생을 모집한다.

전통문화예술강좌는 시 지정 무형유산 가·예능 보유자로부터 직접 기예를 전수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체계적인 전승 교육을 통해 전통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강좌는 수강생의 수련도에 따라 초급반과 중급반으로, 대상에 따라 일반반과 청소년반으로 구분해 운영된다.

모집 분야는 △판소리 4강좌(심청가·흥보가) △판소리고법 △가야금병창(판소리·민요) △전통음식 2강좌(전통다과·생활요리) △태평화 △미니장구 만들기 △민화 △청소년 가야금병창 2강좌 등 총 13개 강좌다. 각 강좌는 15회 과정으로 운영되며, 수업은 전통문화관 내 병창실, 전수실, 음식체험실, 입석당에서 진행된다.

강사진은 시 지정 무형유산 보유자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판소리 중급반은 방성춘 이순자 김선이 최연자씨가 맡으며, 판소리고법은 양신승씨, 가야금병창은 성인반 문명자씨, 청소년반 황승욱 이영애씨, 전통음식은 최영자 민경숙씨, 태평화는 송광무씨, 미니 장구 만들기는 이준수씨, 민화는 이상임씨 등 총 13명이 참여한다.

이에 앞선 2025년도 전통문화예술강좌는 상·하반기 총 26개 강좌를 운영해 240명이 수강했다. 이를 통해 전통문화관은 무형유산 가·예능보유자와 전문 강사진의 전승·보급 활동을 활성화하고, 무형유산 보유자의 전승·보전 역할 강화와 육성기관으로서의 입지 확대에 기여했다.

수강 신청은 오는 12일까지이며, 강좌별 선착순 15~16명을 모집한다. 접수는 전통문화관 홈페이지(www.gtcc.or.kr)와 전화(062-670-8503)를 통해 가능하다. 수강료는 강좌당 10만원(재료비 별도)이며, 연나이 65세 이상(1961년 출생 이전)은 20%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수강료는 강좌 시작 전 취소 시 전액 환불되며, 개강 이후에는 ‘평생교육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일부 차감 후 반환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강좌 일정이 변경될 경우에는 개별 안내 후 조정될 예정이다.

하반기 강좌는 18일부터 11월 28일까지 매주 1회, 총 15주 과정으로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통문화관 홈페이지(www.gtc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전시가 불러오는 상상력·사유 확장하며 심화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전당장 김상옥)은 오는 5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문화정보원 B2 국제회의실에서 ‘2026 ACC 국제 콜로кви움-코스모 아시아 피플: 지정학에서 행성성으로’(Cosmo, Asia, People: From Geopolitics to Planetaryity)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오는 23일까지 복합전시 3·4관에서 열리는 ‘2026 ACC 주제가 기획전시-코스모 아시아 피플: 행성 시대 피플을 재발명하기’와 연계해 마련한 국제 대담 프로그램이다.

전시가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복합적 위기의 시대를 성찰하며 인간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우주적 시선과 비서구적 감각, 행성적 공존의 주체를 탐구했다면 콜로кви움에서는 전시가 불러일

으키는 상상력과 사유를 철학, 정치, 문화, 예술의 관점에서 더욱 확장하고 심화하며 아시아의 집합적 주체성(Collective Subjectivity)과 역량에 주목한다.

이번 콜로кви움에는 한국, 일본, 중국, 홍콩, 인도, 필리핀 등 아시아 6개 국가 및 지역의 연구자 10명이 참여한다. 고쿠루 고이치로(도쿄대), 라



라온 기에르모

마노지 NY

몬 기에르모(필리핀대), 루카 레이 장(정두대), 마노지 NY(인도SRM대), 라이 만 위니(홍콩대) 등 해외 석학들과 김향(연세대), 남수영(한국예술종합학교), 하남석(서울시립대), 황호덕(성균관대) 교수가 대담자로 나서며, 이택광(경희대) 교수가 진행을 맡는다.

이들은 서구나 비인간과의 대담이 아닌 더욱 보편적인 집합체의 가능성으로 ‘피플’을 사유하고, 기존의 방식으로 미래를 재생산하는 데서 벗어나 새로운 미래의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아시아의 자리에 대해 청중과 함께 심도 있게 이야기할 예정이다.

전시 및 콜로кви움과 연계해 ‘코스모 아시아 피플: 지정학에서 행성성으로’도 출간한다. 콜로

요문화전당, 5일 ‘코스모 아시아 피플’ 연계 국제 콜로кви움 한국·일본·중국·홍콩·인도·필리핀 등 6개국 석학 10명 참여

키움 참여자 10명 외에도 세계적인 석학 자크 랑시에르, 슬라보예 지젝, 에티엔 발리바르 그리고 시각예술가 박진경의 포토 에세이를 엮었으며, 출간 기념으로 행사 현장에서 선착순 100명에게 증정한다.

국제 콜로кви움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프로그램 일정은 ACC 누리집(www.ac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상옥 전당장은 “이번 콜로кви움은 아시아 콘텐츠 기획의 바탕이 되는 이론적 토대와 상상력 확대를 위한 연계 사업의 하나”라면서 “‘코스모 아시아 피플’이라는 새로운 공동체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이번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채경 기자 view2018@